

국외 입양아들의 특성과 변화

국립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김 재 윤

= Abstract =

Overseas adoption in Korea

Jae Yoon Kim, M.D.

Department of Pediatrics, National Medical Center, Seoul, Korea

In Korea, overseas adoption has been practiced for more than 50 years. Initially, overseas adoption began with the purpose to provide permanent homes for Korean war orphans, including mixed-blood children. From 1953 to 2007, about 160,000 Korean children were placed worldwide through overseas adoption and approximately 70,000 children were adopted in Korea. During that period, Korea developed into one of leading industrial countries in the world and the family structure changed dramatically. Since 1989,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diverse efforts to increase domestic adoptions and to support adopted families through the revisions to Korea's Child Welfare Law. However, it is not enough to reduce overseas adoptions rapidly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s economic support for adopted families is not adequate and Korean sentiment regarding adoption have not changed. Being an international adoptee is a unique experience, involving dissimilar ethnicity, and culture. Clearly,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focus on placing Korean children in the best possible environment. Therefore, Korea must make diverse efforts to reduce overseas adoptions and to encourage domestic adoption. First, society has to try to reduce the number of children who need out-of-home care.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and society should make an effort to increase domestic adoptions, including adoptions of disabled and older children. Finally, the Korean government and adoption agencies have to provide professional pre-adoption and post-adoption services for international adoptees and adoptive parents. (Korean J Pediatr 2009; 52: 410-416)

Key Words : Overseas adoption, Domestic adoption, International adoptee, Pre-adoption, Post-adoption service

서 론

인류의 출현 이후 어느 시대, 사회에서나 친부모가 돌볼 수 없었던 아이들은 있어왔고, 또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시설보호, 위탁보호, 입양제도 등을 고안하였는데 그 중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입양제도라고 할 수 있다¹⁾. 입양에 대한 기록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고대부터 일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입양아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해 주려는 근대적 의미의 입양이 시작된 시점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부터이다^{2, 3)}. 50년대 초반에 국외입양이 시작되어 50여년이 지나는 동안 약 16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해외로 나갔으나 국내입양 아동은 국외입양아의 44%밖에 안

되는 7만 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Table 1, 2)⁴⁾.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이후 정부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국내입양의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아 1991년도 이후에도 매년 2,000명 내외의 아동들이 국외로 입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³⁾.

1994년부터 입양될 영유아들의 건강과 질병관리를 위해 국내외입양기관의 자문의사로 활동하며 얻은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정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Table 1. Overseas and Domestic Adoptions in Korea : 1958-2007

Year	1958-2000	2001-2005	2006	2007	Total
Domestic	59,477	8,130	1,332	1,388	70,327 (30.5%)
Overseas	145,698	11,447	1,899	1,264	160,308 (69.5%)
Total	205,175	19,577	3,231	2,652	230,635

Received : 16 March 2009, Accepted : 23 March 2009
 Address for correspondence : Jae Yoon Kim MD
 Department of Pediatrics, National Medical Center,
 243, Ujiro, Jung-gu, Seoul, 100-799, Korea
 Tel : +82. 2-2260-7300, Fax: +82. 2-2267-7301
 E-mail : nncmpkjp@nmltel.co.kr

Table 2. Number of Overseas Adoptions by Country : 1958-2007

Year	1958-1980	1981-1990	1991-2000	2001-2007	Total
U.S.A.	34,075	44,982	16,982	11,195	107,234
France	3,831	6,161	870	295	11,157
Sweden	4,962	2,519	1,018	722	9,221
Denmark	4,254	3,181	921	326	8,682
Norway	2,385	2,169	1,143	553	6,250
Netherlands	2,389	1,301	304	105	4,099
Belgium	2,775	911	11	0	3,697
Australia	163	1,843	716	619	3,341
Germany	1,242	1,097	12	1	2,352
Canada	363	1,015	75	650	2,103
Switzerland	1,099	9	3	0	1,111
Luxembourg	0	134	267	144	545
Italy	380	2	0	0	382
Others	128	5	1	0	134
T total	58,046	65,329	22,323	14,610	160,308

본 론

1.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을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고 부모 자녀관계가 출산이 아닌 방법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 법적 과정이다. 아동과 친부모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부모와 자녀관계를 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창출해내는 과정이며⁵⁾, 이러한 결과로 입양인은 새 가족의 영구적인 구성원이 되고 친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⁶⁾. 입양하는 방법은 독립입양(친부모와 양부모가 직접 상의), 기관입양(아동복지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해 입양절차를 밟음),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했던 불법입양(조산소나 산부인과에서 입양함)이 있고 입양사실의 공개여부의 정도에 따라 개방입양, 공개입양, 그리고 비밀입양이 있다^{7, 8)}.

2. 한국의 입양 역사

고대사회부터 시작된 입양제도의 목적은 근세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었지, 입양아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조상을 기리면서 가문을 계승하고 재산을 상속시키기 위함이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기록에 등장하는 입양아는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고구려의 주몽과 신라의 석탈해였으며 이때 입양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후계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³⁾.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 때는 입양아의 신분이 주로 외부인의 아들이거나 딸이었지만⁹⁾, 조선시대 중기에 들어오면서 일정한 유교적 입양의 법칙이 존재하였는데 첫째, 남자아이여야 하며, 둘째는 친척이거나 특히 조카이어야 하

고, 셋째는 반드시 입양부보다 한 세대 아래인 아이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규칙이었다³⁾.

이러한 지침은 근세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들어서도 계속 유지되어 1912년 법제화된 ‘조선민사령’의 입양에 관련된 법령도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적 입양방식에 의거하여 입안되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입양제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¹⁰⁾.

3. 한국의 국외입양 변천사

한국의 국외입양은 시대적 상황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그 기초가 정해져 시행되었으므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952년 10월에 사회부장관 훈령인 ‘후생시설 운영요령’이 발표되어 고아들을 국내입양 위탁형식으로 시설에서 돌보았으나 당시에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쟁고아와 외국군 주둔 후 발생한 수많은 혼혈고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한 상태였다. 그래서 1954년부터 국외입양사업을 시작하였고 혼혈아동들의 입양을 활성화시키려 ‘한국아동양호회’가 만들어졌으며, 미국 오레곤주에서 온 선교사인 Harry Holt가 당시 혼혈아동 8명을 입양하였다. 이 다음해부터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수의 시설들, 즉 1955년에 카톨릭구제회, 안식교성육양자회, 1956년에는 홀트양자회(1972년 홀트아동복지회로 개칭), 그리고 1957년엔 국제사회봉사회 등이 창립되었다¹⁰⁻¹²⁾. 이후로 국외입양이 굉장히 활발해졌으나 적절한 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1961년 ‘고아입양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외입양절차를 쉽게 할 수 있게 조치하였다. 법제정 전인 1961년까지 약 4,190명의 아동들이 외국으로 입양되었는데 2,601명이 혼혈아였다(Table 3)^{13, 14)}. 고아입양특별법이 만들어진 다음 국외입양알선기관 4개소(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를 허가하였고 동시에 국내입양을 활발하게 하고자 ‘고아 한 사람씩 맡아 기르기’ 운동을 1962년부터 시행하

였으나 입양위탁을 원하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은 적었다. 북한이 1970년부터 한국의 국외입양을 악선전하여 정부는 북구유럽국가 입양중단을 1970-1075년에 2회 실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파로 위탁가정 아동이 갑자기 늘어나 사망률이 높아졌으며, 이는 정부가 국가적 자존심과 현실적인 아동보호수단의 부재라는 딜레마 때문에 보여준 정책혼선의 결과였다¹¹⁾. 1970년대부터 입양아발생 요인이 1960년대와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는데, 혼혈아동은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경제발전으로 인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윤리의 퇴색과 성윤리의 해이 등으로 미혼모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대로 1970년대는 비교적 연령층이 높고 공원이거나 하층민이 많았으나 1980년대 들면서 10대 미혼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미혼모의 학력도 높아졌으며 정상적인 가정출신이 많아졌다(Table 4)¹⁴⁻¹⁷⁾. 1976년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 법규가 탄생하였고 이 법으로 인해 법적 근거가 없이 은밀하게 많이 이루어졌던 국내입양방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 시기는 정부가 아동복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이 부재하였기에 국외입양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또다시 북한의 악선전이 강화되어 정부는 1982년에 국외입양을 전면 중단하기 위한 조치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및 가정위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시행정책이 너무 졸속

으로 만들어졌고 현실과 동떨어진 방법들이어서 도리어 입양알선 기관들이 성과위주의 입양사업을 하도록 중용하게 만들어 국외입양 전면 중단 연도는 1985년도로 연기되었다. 사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고 아동복지에 관련된 많은 법안들을 만들었으나 구체성이 미흡했기 때문에 오히려 1981년 ‘이민확대 및 민간외교’라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1988년까지 국외입양 전면개방을 추진하였다¹⁰⁾.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고아수출국 제 1위국’이란 외국 언론들의 보도 등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국외입양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입양 활성화를 전국각적으로 모색하게 되었고 정부는 1996년부터 국외입양을 중단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이 결정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1994년에 번복되었다. 정부는 국제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고, 1995년 입양특례법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국내 입양을 권장하고 입양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법령을 마련하였으나 1998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으면서 오히려 요보호아동수가 증가하여 국외입양아동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국외입양 감소정책은 실패하였다¹²⁾.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을 보완하여 정부는 국내 입양인 지원을 확대해오는 중이며 특히 최근에는 장애아 입양 활성화를 위한 양육비 및 의료비 인상정책을 쓰고 있으나¹⁸⁾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 이유는 국외 및 국내 입양인 중 장애아동 입양수를 연도별로 나타낸 자료를 보면 금방 그 사실을 알 수 있다(Table 5)¹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아를 입양할 만큼 인식이 바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처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의료적 배려가 아직 부족하고 국가의 지원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4. 입양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제

자신들의 입양 전 정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국외입양인들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많은 발달과제들을 경험하고 해결하면서 자아 정체감과 존중감을 완성해야 하며, 또한 국내입양인들과 달리 인종 및 문화 정체성에 대한 심리적 과제도 추가로 풀어야만 한다¹⁹⁾. 따라서 관련 있는 논문들과 ‘현대사회에서의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²⁰⁾, 그리고 ‘입양의

Table 3. Number of Overseas Adoptions by Ethnicity : 1953-1973

Year	Overseas	Mixed	Year	Overseas	Mixed
1953	4		1963	442	196
1954	8		1964	462	232
1955	59	52	1965	451	201
1956	671	618	1966	494	249
1957	486	411	1967	626	276
1958	930	623	1968	949	317
1959	741	291	1969	1,190	308
1960	638	245	1970	1,932	361
1961	660	361	1971	2,725	281
1962	254	158	1972	3,490	212
1963	442	196	1973	4,688	154

Table 4. Family Background and Category of Overseas Adoptions : 1958-2005

Year	Abandoned	Split family	Unwed mother	Total
1958-1960	1,675 (66.1%)	630 (24.9%)	227 (9.0%)	2,532
1961-1970	4,013 (55.2%)	1,958 (26.9%)	1,304 (17.9%)	7,275
1971-1980	17,260 (35.8%)	13,360 (27.7%)	17,627 (36.5%)	48,247
1981-1990	6,769 (10.4%)	11,399 (17.4%)	47,153 (72.2%)	65,321
1991-2000	225 (1.0%)	1,444 (6.5%)	20,461 (92.5%)	22,129
2001	1	1	2,434	2,436
2002	1	0	2,364	2,365
2003	2	2	2,283	2,287
2004	0	1	2,257	2,258
2005	4	28	2,069	2,101

Table 5. Number of Adopted Children by Disability : 1958-2005

Year	Overseas adoption			Domestic adoption		
	Total	Disabled	%	Total	Disabled	%
1958-60	2,532	1,588	62.7	168	0	0.0
1961-70	7,275	2,064	28.4	4,206	0	0.0
1971-80	48,247	4,598	9.5	15,304	1	0.0
1981-85	35,078	7,058	20.1	15,424	3	0.0
1986-90	30,243	9,320	30.8	11,079	9	0.1
1991-95	10,974	4,892	44.6	5,817	100	1.7
1996-00	11,258	4,024	35.7	7,479	67	0.9
2001-05	11,447	3,661	32.0	8,130	84	1.0

생애주기²¹⁾라는 자료를 통해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잉태, 임신 그리고 출산의 상황

대부분의 입양인들은 자신이 태어났을 때 불필요한 또는 부담스러운 아이였을 것이라는 느낌을 성장한 후에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느낌은 비입양인들도 자신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다른 차별화된 특성을 발전시키면서 보상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므로 입양인의 문제만은 아니라 할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입양인은 자신의 잉태에 관한 정보나 유전적 정보가 거의 없어서 그들의 삶과 관련이 있는 환경적 요인들과 유전적인 요인들을 분리해 보고자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여러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

2) 분만 후의 기간

친모로부터 신체적, 감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근원적 상처를 받은 후 여러 가지 행태를 아기들은 나타낸다. 이러한 근원적 상처를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어도 좋은 입양가정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입양아들이 친모 상실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모두 공통적이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입양가정이기 때문이다.

3) 영유아

양부모들 상당수가 불임부부이므로 이들은 입양아와 애착관계를 갖기 전에 반드시 임신문제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아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으며 그 아이의 특별한 욕구를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입양아의 근원적인 상처의 치유를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고 서로 친밀감과 신뢰감을 공유할 수 있다. Zeanah 등²²⁾에 의하면 만 2개월부터 7개월경에 자기를 잘 돌보는 사람을 제한된 상태로 구별할 수 있고, 7개월과 12개월 사이엔 아주 강한 애착을 나타낸다고 하므로 만 6개월 이전에 입양이 된 아기는 훨씬 쉽게 입양부모를 받아들이고 편안해할 수 있다²³⁾.

4) 학령기 전 단계

이 단계의 아동들은 입양의 정보를 미리 알게 될 경우 혼란스러워 하며 특별하고 신비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입양의 내용, 질 및 상황에 관한 사실의 공개는 아동의 발달적 상태와 상호작용관계에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를 택해야 한다. 사실 미국도 1970년대 중반까지는 비밀입양이 대부분이었고 1980년대에 와서야 공개입양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에 Lincoln

Caplan이 ‘개방입양’이라는 책²⁴⁾을 출판하면서 입양인과 친부모의 알 권리를 인정하는 상황이다. 특히 다른 인종간의 입양은 양부모와 자기는 다르다는 사실을 입양아는 일찍 알게 되고, 일부 아이들은 3세 이전에 대화소통이나 발달과정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데 즉시 전문가들이 조기 개입하여 평가과정을 거친 후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²⁵⁾. 나이가 든 상태에서 입양된 아동들, 즉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들은 고아원이나 위탁가정 등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때 겪었던 애정결핍,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입양부모로부터 많은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일부 아동들은 언어와 인지능력이 상당히 지연되어 있을 수 있고 행동 및 애착장애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²⁶⁾.

5) 학령기

‘조작적 기능’이 출현하는 시기로서 신체적인 성숙과 경험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입양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울해 지기도 하고 이것을 감정적이나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어떤 아동들은 즉시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입양된 것이 훨씬 좋다고 설득하기도 한다. 이때 자신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고 친부모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며 국외입양아들은 그들의 인종과 문화에 대한 일체감의 혼란 등 정체감 형성에 위협스러운 것들을 느끼게 된다. 버려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근면성과 열등감과의 싸움을 하는 시기이므로 양부모들은 아이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친부모와 뿌리의 상실감을 이해함과 더불어 상실에 대한 애도, 즉 심리적 싸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심리적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끔 조인 등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²⁷⁾. 또한 국외입양아를 둔 양부모는 자녀들의 친가족, 인종 및 문화유산에 대한 정체성을 지켜주기 위해 평상시에 존중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어야 하며, 자조모임에도 자주 나가서 서로간의 경험을 입양아는 입양아끼리 양부모는 양부모끼리 공유하는 것이 매우 유익할 수 있다²⁸⁾.

6) 사춘기와 초기 청년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로 입양인들은 자신이 가진 생물학적인 부분과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지나치게 부인하며 심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친부모와의 성적인 동일시 현상은 흔히 관찰할 수 있는데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는 한 방법이며, 소녀들의

경우 원인은 정확하지 않으나 비입양인들보다 일찍 성적으로 조속할 수도 있다²⁹⁾. 따라서 양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각자 서로에 대한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대면함으로써 입양인의 인식을 통합시켜 응집된 자아의 정체감과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입양인들도 이 시절에는 분리와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국외입양인은 좀 더 독특하여 친부모로부터 포기되어 신성한 생물학적 연계를 잃었던 것 때문에 양부모와의 분리는 다시 그들이 새로운 출발보다는 쫓아냄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의 공포감을 유발하여 양부모와의 연계 강도를 시험하고자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친부모, 인종과 문화에 대한 정체성 등에 많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의 뿌리 찾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양부모의 흠집잡기, 거리감 두기를 실행하면서 친부모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게 되므로 양부모들은 어쩌면 자녀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주 심한 정신적 곤란을 경험한다. 사실 청소년 입양인의 분리와 독립 추구는 비입양인들과 달리 친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어떤 종류의 연대를 양부모와 친부모한테 맺을 것인지에 대한 탐색이므로 양부모는 입양한 자녀에게 기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삶의 변화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조모임을 자주 참석하여 경험을 공유하며 자녀들도 다른 입양인들과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³⁰⁾.

7) 청년기

이 시기는 정체감의 확립과 가족과의 연계를 더욱 잘 단련하기 위한 분리과정이 계속되는 시기로서 출산과 같은 자신의 생애 주기의 변화나, 출생정보를 알고 싶거나, 친부모와 관계를 맺고자, 혹은 자신을 이해하고 싶어서 등등의 이유로 친부모를 찾으려 하는 경향이 강하기도 하다. 일부 입양인들은 분노의 감정과 거절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친부모를 찾고자 하는 일을 거부하기도 한다. 사실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는 것은 그들의 입양가족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확대된 가족을 만들어 두 부분들을 통합함으로써 스스로 완전하다는 느낌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³¹⁾. 비입양인들과 달리 입양인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요인들이 포함되어있어 힘겹게 헤쳐 나가는 그 상황은 아주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양부모들은 이해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8) 성인기

이 시기는 세대와 세대적 역할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독립과 출산을 경험함으로써 인해 입양인들은 부모가 되고 한 단계 역할이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입양인임을 밝혀야 할 시기이기도 하여 불완전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고통을 맞보게 되고 이것이 양부모의 고통을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9) 입양인들의 발달과제에 대한 결론

여러 임상심리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입양인들이 비입양인들보다 행동이나 심리문제들에 대해 과잉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은 보

편적 결과라고 인정받아 왔다. 그 이유는 입양인들이 훨씬 더 많은 감정적, 행동적 문제들을 갖고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인데, 대부분의 논문들이 입양 전 상황부터 입양 후 발달과정, 학업과정, 정서상태에 모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족환경요소들에 대한 광범위하며 장기적인 조사를 하지 못한 논문들이어서 한계점이 많아 결과에 대한 의미를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었지만 최근에 나온 몇 개의 장기간 관찰한 논문들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³²⁾. 그러나 좀 더 다양하고 심도가 깊은 연구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궁극적으로 입양인들의 심리적 발달과제는 그들의 버려짐과 포기되었다는 사실, 즉 상실감과 직면한 투쟁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조단체나 치료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즉시 개입을 해야 하는데 발달단계의 고착화를 보일 경우, 예를 들면 입양인이 양부모와 서로 자극하며 싸우는 상태를 지속할 때, 그리고 입양인들이 '선택적 이탈'을 시도할 경우 등이다. 결론적으로 입양인과 양부모 각자가 원했던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국외입양에 대한 대책

첫째,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발생요인 중 기아와 미아의 경우 90년대 초반에는 연간 2,000명 가까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기백 명에 불과할 정도로 줄었고, 학대, 실직, 빈곤, 비행, 가출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와 미혼모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³³⁾. 특히 국외입양아동의 주제공자는 미혼모이고 40% 이상이 출생아에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유발되는 미성년층이므로 10대 미혼모는 산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³⁴⁻³⁶⁾,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현실적으로 적절한 성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³⁷⁾. 또한 미혼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시설의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³⁸⁻⁴²⁾, 미혼부에게도 경제적 책임을 법제화하여 양육의 공동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⁴³⁾. 가정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요보호아동들과 기아는 아동복지차원에서 사회와 정부의 예방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의 대리양육이나 친척 혹은 인척 가정, 또는 일반가정의 위탁보호 확대와 재정 지원도 매우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다⁴⁴⁾. 둘째는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입양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바꾸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실천이 필요하고, 2006년부터 정부가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⁴⁵⁾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큼 입양아동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나이가 든 아동들의 입양지원이 절실하다^{46, 47)}. 또한 입양부모들의 자조집단 활성화 지원과 이로 인한 공개입양 확대도 유도해야 한다^{48, 49)}. 마지막으로 국외입양인들에 대한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사전관리는 입양인들에 대한 정보화 사업의 내실화, 예비양부모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시간 제공⁵⁰⁾, 그리고 외국

로 입양하기 전에 의사로 하여금 아동들에 대한 성장과 발달과정 평가, 친부모의 병력정보, 아동의 병력 및 예방접종, 검사소견 등을 검증하여 의학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⁵¹⁻⁵⁷⁾, 사후관리 서비스는 국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현지 입양인 자조모임들을 지원하여 네트워크화하고 한국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며, 입양인들의 뿌리찾기 활동 시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과 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히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야 한다⁵⁸⁾. 그리고 현지정착을 지원하고 국내체류생활을 원활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국가에서 해 줄 수 있어야 한다⁴⁾.

결론

국외입양인의 특성도 50여 년간에 걸쳐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에서 현재 미혼모 아동으로 변해왔고 장애아동이 그 중에 상당수 포함되어있으나 국내입양은 아직 비밀입양과 정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입양이 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입양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입양아동들의 의학적 문제점을 적시에 간파하여 필요한 경우엔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와 국민은 입양의 목적이 가족과 양부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가정을 입양아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즉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한다’는 원칙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길만이 국외입양을 증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외국에서 살고 있는 16만 명이 넘는 국외입양인들과 그들의 양부모들에게 사회복지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가 전문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다.

References

- Schulman I, Berhaman RE. Adoption :overview and major recommendations. The future of children 1993;3:4-15.
- Tobias H. Overseas adoption and Korean nationalism. Seoul : Sonamu Co, 2008:59-65.
- Koo JH. A study on models for the child welfare services in local community. Whodeokri (Chungnam):Korea international culture University, 2007.
- Global Adoption Information & Post Service Center. The 3rd work shop on promoting post adoption services. 2008:21-34.
- Kadushin A. Child welfare services.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1980:533.
- Seo RS. University student' attitude about domestic adoption. Seoul :University of Seoul, 2007.
- Kim BS. The difference in university student's opinion on adoption according to publicity and education. Busan : Kyung Sung University, 2007.
- Lee HJ. A study of adoptive parents' rearing experience according to adopted forms.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1.
- Park K. The practice of suyang and shiyang adoption during the early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heir-naming law.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6.
- Jung SR. A study on the problem of adoption services and the activation plan of open adoption in Korea. Iksan city (Jeonbuk) :Wonkwang University, 2005.
- Han JM. People's attitude and activate way about domestic adoption. Cheongju city(Chungbuk) :Chongju University, 2003.
- Jeong ES. A study on current service condition and effective solutions of domestic adoption in Korea. Wonju city (Gangwondo) : Sangji University, 2007.
- Lee SA. Feminist reflections on the issues of race and gender working on the experience and social status of American women in Korean societ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6.
- Overseas Koreans Foundation.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Statistics. 2006:611-30.
- Jang WS. A study on the policies supporting the unmarried mothers. Seoul :Sogang University, 2007.
- Jang BR. Problem and improvement of the welfare for the unmarried mother. Wonju city(Gangwondo) : Sangji University, 2006.
- Choi SW, Cho KH, Ahn DH, Sohn KC. Observation of social background and disease patterns of children in an institute for foreign adoption. J Korean Pediatr Soc 1982;25:241-9.
-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The report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7;258-9.
- Ko HY. Research on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overseas adoptees. Seoul :Chung-ang University, 2005.
- Bai TS. Understanding and success of adoption in the present age. Masan City (Kyungnam): Kyungnam University press, 1998:98-118.
- Elinor BR. The adoption life cycle :th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rough the years. Seoul : Shinj-jeong book Co., 2007:121-63.
- Carol W, Lisa A. Long-term developmental, behavioral, and attachment outcomes after internal adoption. Pediatr Clin N Am 2005;52:1395-419.
- Han DS.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adoption period (age), adoptee's nursing period, adoptive mother' role satisfaction and attachment security. Seoul :Chung-ang University, 2001.
- Kim KA. Problem of the open adoption of our country and how to activate it. Incheon : Incheon University, 2002.
- Nalvan L. Strategies for addressing long-term issues after institutionalization. Pediatr Clin N Am 2005;52:1421-44.
- Ko HJ. Case study of parental perception on the problems of the older age adopted child and facilitating and preventing factors on parental adaptation. Daejeon :Hannam University, 2005.
- Chang JH. A research in actual conditions of post management of domestic adoption and the need for art therapy. Iksan city(Jeonbuk) : Wonkwang University, 2005.
- Johnson DE. International adoption: what is fact, what is fiction, and what is the future? Pediatr Clin N Am 2005;52:

- 1221-46.
- 29) Mason P, Narad C. Long-term growth and puberty concerns in international adoptees. *Pediatr Clin N Am* 2005;52:1351-68.
 - 30) Cox SS, Lieberthal J. Intercountry adoption: young adult issues and transition to adulthood. *Pediatr Clin N Am* 2005; 52:1495-506.
 - 31) Lee MS. Research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overseas adoptees. Seoul:Seoul Women's University, 2002.
 - 32) Weitzman A, Albers L. Long-term developmental, behavioral, and attachment outcomes after international adoption. *Pediatr Clin N Am* 2005;52:1395-420.
 - 3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report of major index of Korean children, 2006. 2006:45-7.
 - 34) Ha MC, Kim CY. Clinical evaluation on newborn of teenage pregnancy. *J Korean Pediatr Soc* 1990;33:306-14.
 - 35) Park KA, Kim SC, Ahn BJ, Ryoo HC. Childbirth teenage. *Korean J Obstet Gynecol* 1975;18:923-28.
 - 36) Kim HJ, Son JA, Kim JY, Ahn DH. Changing social background patterns of children in adoption institutions(the 4th report). *J Korean Pediatr Soc* 1999;42:115-21.
 - 37) Kim HS, Kim SY, Kong SH, Lee DW, Kim KE, Shin HJ, et al. Observation on causes of adoption and social background of children in adoption institution(5th report). *Korean J Pediatr* 2004;47:264-8.
 - 38) Jang RB. Problem and improvement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unmarried mother. Seoul:University of Seoul, 2006.
 - 39) Jeong HM.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welfare system for unwed mothers. Yongin city(Gyeonggi-do):Dankook University, 2005.
 - 40) Kim HS. 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system for the unmarried mothers. Yongin city(Gyeonggi-do):Dankook University, 2002.
 - 41) Kim SG. A study on the cause of a younger age group of unmarried mothers and its improvement plan. Seoul:Kyung-Hee University, 2002.
 - 42) Na EJ. Study on intervenient strategies for welfare programs for unmarried mothers. Busan:Dong-A University, 2003.
 - 43) Noh HJ.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welfare system for unmarried mothers. Busan:Dong-A University, 2002.
 - 44) Kim JH. A study on the strategic activation on adoption programs in Korea. Seoul:Sangmyung University, 2003.
 - 45)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06-10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2006:61-3.
 - 46) Choi JH. A study on current condition and development plan of the domestic adoption in Korea. Kongju city(Chungnam):Kongju national University, 2003.
 - 47) Jeong ES. A study on current service condition and effective solutions of domestic adoption in Korea. Wonju city (Gangwondo):Sangji University, 2007.
 - 48) Baeg MK. Development of a self-help group program for adoptive parents. Daejeon:Hannam University, 2002.
 - 49) Song HY. The study on the adaptation of the adopting families and the way to facilitate the open adoption. Seoul:Myongji University, 2006.
 - 50) Miller LC. Immediate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for internationally adopted children transitioning to families. *Pediatr Clin N Am* 2005;52:1311-30.
 - 51) Chambers J. Preadoption opportunities for pediatric providers. *Pediatr Clin N Am* 2005;52:1247-69.
 - 52) Barnett ED, Chen LH. Prevention of travel-related infectious diseases in families of internationally adopted children. *Pediatr Clin N Am* 2005;52:1271-86.
 - 53) Barnett ED. Immunizations and infectious disease screening for internationally adopted children. *Pediatr Clin N Am* 2005; 52:1287-310.
 - 54) Schulte EE, Springer SH. Health care in the first year after international adoption. *Pediatr Clin N Am* 2005;52:1331-50.
 - 55) Davies JK, Bledsoe JM. Prenatal alcohol and drug exposure in adoption. *Pediatr Clin N Am* 2005;52:1369-93.
 - 56) Kwon JB, Park SC, Ko JW, Lee MI, Ahn DH. Observation of social background and disease patterns of children in an institute for adoption(the 4rd report). *J Korean Pediatr Soc* 1995;38:82-90.
 - 57) Hong CY. Results of screening examination on children for adoption. *J Korean Pediatr Soc* 1980;23:26-31.
 - 58) Kim SK.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motherland visiting program for overseas adoptees. Gwangju:Gwangju University, 2003.